

대구銀의 희한한 행장뽑기... 구속된 前 회장의 측근 2명이 최종후보에

사실상 '박인규 2기' 체제... 누가 '개혁' 말할수 있나



“반성·쇄신 물건너가”
지역사회·직원들 싸늘

두 후보자 각자의혹 연루설
사외이사·감독원 책임론도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 은행장직무대행



대구광역시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행장 선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인규 전 행장이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 주 중으로는 신임 행장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자칫 '박인규 2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인물로는 쇄신은 커녕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경영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압축된 차기 은행장 후보 2명은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이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심층면접을 통해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차기 은행장 후

보로 내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DGB대구은행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 네버엔딩 'CEO 리스크'

문제는 두 명의 후보가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측근 인사라는 데 있다. CEO가 비리혐의에 구속까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은 물론 쇄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내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싸늘하다.

김 후보자는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박 전 행장과 고교, 대학 모두 동문이다. 대구은행 경북 본부장까지 지내고, 2015년부터는 지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에는 지주 부사장으로 박 전 회장을 수행했다.

박 후보자는 오산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역시 박 전 행장의 대학 동문이다. 대구은행에서 부울경 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는 부행장으로 마케팅본부와 서울본부를 이끌었다.

현재 구속된 박 전 행장의 혐의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만 가능한 혐의임을 감안하면 주요 요직에 있었던 두 후보자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임 행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쇄신에 성공한 BNK금융지주와는 달리 대구은행은 CEO 리스크가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후보자는 경산시 금고 유치와 관련한 비위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자 역시 계열사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사외이사 책임론 부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추위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했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당초 5명의 사외이

사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명을 제외한 4명으로 구성됐다. 김진탁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와 선익덕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서균석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김용신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이다.

이 중 3명이 영남대 출신으로 박 전 행장과 동문이며, 나머지 한 명 역시 대구상고 출신으로 박 전 행장과 고교 동문이다. 대구은행 노조가 행장 선임 절차 초기부터 임추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추위원들 모두 박 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년 동안 사외이사직을 맡아오고, 대부분의 이사회 안건에 찬성하며 박 전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가능케한 인물들”이라며 “임추위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은행장 선임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CEO 리스크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상장사 43%, 내부감사 부서 아예 없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코스피 26%·코스닥 55% 無
“감사위원회 실무이행에 한계”

국내 상장사의 절반 가량은 제대로 된 내부감사부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을 보면 국내 1941개 상장사의 42.5%(824개)가 내부감사 부서가 아예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각각 내부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다. 주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위원이 모든 세부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감사 부서가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실무 이행에 한계가 있게 된다고 삼정KPMG는 설명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행위를 적절히 감독하도록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그쳤다. 반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에 달해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 152곳 중 CoE 방식(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자율 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14개사(9.2%)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되 여러 사정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적용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상용노동자, 임시직 대체’ 결과 분석도

>> 1면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서 계속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고용알선업 등이 속하며 아파트에 경비·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상용직 감소가 생산 악화, 외국인 관광시장 위축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일부 업종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최근 생산지수가 좋지 않았고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에 나타난 변화만으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최



지난 1일 민중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종로4가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상용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대체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상용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임시직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기술공유로 미래차 기술 선도

상반기 R&D 협력사 테크데이 개최

현대·기아차가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을 통한 미래 자동차 기술 선도에 앞장선다.

현대·기아차는 15일 경기도 화성 몰링 힐스 호텔에서 현대·기아차 양웅철 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들과, 현대·기아차통합협력회 이영섭 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등 협력사 79개사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상반기 R&D 협력사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R&D 협력사 테크데이는 현대·기아차가 최신 정보 공유 및 각종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량 IT 및 전동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2018 상반기 R&D 테크데이

는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미래기술을 행사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현대·기아차 각종 시험 평가 활동을 참관하는 기회와 함께 우수 협력사의 성과를 포상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미래기술 체험 및 시험동 참관’ 활동은 ▲자율주행 관련 미래 기술 체험 ▲실차 충돌 시험 및 더미 평가 ▲승차감 평가 ▲전자파 시험 및 안테나 성능 평가 ▲엔진 및 변속기 성능 평가 등 각종 시험동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동반자로서 수평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